

## 유럽

- 獨, 크리스마스 인파 겨냥 테러 모의한 10대 남성 체포
  - 11.12 獨 범죄수사국은 美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, 트럭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마켓 인파를 겨냥한 테러 모의 혐의로 튀르키예 출신 17세 남성을 체포하였으며 이슬람 극단주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발표
  - ※ 언론은 최근 레버쿠젠에서도 테러 계획이 적발되는 등 '16년 베를린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겨냥 트럭 돌진 사례를 모방한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부언

## 미주

- 美, 시리아 내 이란 연계 표적 9곳 공격
  - 11.12 美 국방부는 시리아 내 주둔 중인 美軍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의 골란고원 등 이란과 연계된 표적 9곳을 공격했으며, 美軍에 대한 공격 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
  - ※ 美 국방부는 테러단체 ISIS의 재건을 막기 위해 900명가량의 군인을 주둔 중
- 아이티, 여객기 총격 사건으로 공항 폐쇄
  - 11.12 언론은 아이티로 향하던 미국 국적의 여객기가 총격을 받아 인근의 도미니카공화국에 긴급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으며, 아이티 정부는 18일까지 포르토프랭스 공항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보도
  - ※ 아이티는 지난 2월부터 갱단 폭력 사태가 지속되는 등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으로, 우리 정부는 아이티 전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 중

## 중동

- 레바논, 무선호출기 연쇄폭발사건 배후 이스라엘 ILO에 제소
  - 11.7 언론은 레바논 정부가 지난 9.17~18일 발생한 무선호출기(삐삐) 연쇄 폭발사건과 관련 헤즈볼라와 무관한 민간인 노동자 다수가 사상했다며 유엔 산하 ILO(국제노동기구)에 이스라엘을 제소했다고 보도

○ **이스라엘,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 연루 인정**

- 11.11 언론은 「네타냐후」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월 일어난 레바논 호출기 폭발 사건의 배후가 자신들이라고 처음 인정했으며, 이는 「도널드 트럼프」가 美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  
※ 美 CNN 방송은 「네타냐후」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을 등에 업고 더욱 대담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언

○ **이라크軍, ISIS 은신처 파괴 및 테러리스트 4명 사살**

- 11.10 외신은 이라크 軍이 전투기를 활용하여 폭발물, 무기, 탄약, 물류 물품 등이 보관되어있는 북동부의 함린산맥의 테러리스트 은신처를 공습하여 파괴하고 ISIS 테러리스트 4명을 사살했다고 보도

## 아 · 태평양

○ **호주, '청소년 SNS 사용 연령 제한법' 발의**

- 11.7 호주 정부는 SNS로 활동하는 극단주의 단체 소속 청소년이 시드니 교회 흉기 테러 사건을 일으키는 등 SNS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  
※ 노르웨이는 SNS 사용 최소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강화

○ **파키스탄, 기차역에서 자폭 테러 공격**

- 11.10 언론은 9일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 퀘타시의 기차역에서 군인들을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, 26명이 사망했으며 발루치스탄해방군은 同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  
※ <sup>↑</sup> 아프가니스탄에 본부를 둔 발루치족 민족주의 무장조직으로 파키스탄·美·英 등이 테러단체로 지정  
※ 발루치스탄은 무장조직의 테러가 잦은 지역으로 최근 중국인들을 겨냥한 테러도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 域內 우리 국민 신변안전에 만전 필요

○ **中, 광둥성 주하이市에서 차량 돌진 사고로 35명 사망**

- 11.12 언론은 중국 광둥성 주하이市의 광장에서 고의로 의심되는 차량돌진 사고가 발생해 35명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다쳤으며, 사건 현장 사진과 영상은 중국 당국에 의해 검열되었다고 보도  
※ 언론은 경찰이 도주하던 운전자(62세, 남)를 체포했으며, 사고가 발생한 광장은 현지 주민들이 운동을 위해 자주 찾는 보행자 전용구역이라고 부언

영국, 리버풀에서 폭탄테러 시도

- '21.11.14 영국 리버풀 대성당 인근 여성병원 앞에서 정차중이던 택시가 폭발하여 승객\*(사제폭탄소지자)이 사망하고, 택시기사는 부상
    - \* 이라크 출신(23세)으로 '14년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
  - 기사는 승객이 자신의 옷에 불을 붙이는 듯한 수상한 행동을 보고 테러를 직감, 승객이 외부로 나갈 수 없게 뒷문을 잠그고 피해 대형참사를 예방
    - ※ 이날은 꺄 현충일로 대성당에서 추모식(2천여명 참석) 중이었고, 병원은 연 5만명이 이용
  - 이후 영국 정부는 한 달 새 테러가 두 차례 발생하자, 추가 테러 피해 예방을 위해 테러 경보 수위를 '상당(Substantial)'에서 '심각(Severe)'으로 격상
    - ※ 사제폭탄 제조를 도운 20대 4명에 대해서도 체포 후 조사
  - 한편, 주영국 한국 대사관은 同사건 이후 영국 방문 또는 체류중인 우리국민 상대로 경각심을 가지고, 신변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
    - ※ △광장 등 다수가 운집해 있는 장소는 테러 공격 대상이 되기 쉬움 △주변 안전시설 위치 파악 △폭탄테러 발생시 대응요령 등 테러 관련 안전 수칙도 안내
- ⇒ 각국의 테러 예방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, 자생적 극단주의자의 테러 위협이 큰 만큼 재외국민 신변안전에 대한 경각심 환기 필요

<영국의 테러경보 단계>

- (조정기구) 영국의 테러위협 경보 수준은 국내정보국(MI5)이 산하 독립기구인 합동테러분석센터(JTAC)의 권고를 토대로 결정
- (경보단계)
 

Low(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음)	낮음
Moderate(공격이 가능하지만, 가능성이 낮음)	보통
Substantial(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)	상당
Severe(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)	심각
Critical(가까운 미래에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)	위급
- (현재 경보) '22.2월부터 '상당(Substantial)' 단계 유지 중